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친구집단 성태도와 성허용성

장수현¹ · 이성희²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¹, 부교수²

Self-esteem,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riend's Sexual Attitude and Sexual Permissiveness in College Students

Jang, Su Hyun¹ · Lee, Sung Hee²

¹Part-time Lecturer,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sexual permissiveness in college students. **Methods:** A descriptive design was used with 380 college students who completed a questionnaire about self-esteem,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friend's sexual attitude and sexual permissiveness. **Results:** The sexual permissiven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variable: grade ($F=0.51, p=.002$), gender ($t=7.28, p<.001$), age ($F=14.72, p<.001$), religion ($t=4.97, p<.001$), residence type ($F=4.75, p=.009$), number of call with parents ($F=3.56, p=.030$), number of viewing pornographic video ($F=36.05, p<.001$), number of viewing pornographic magazine ($F=47.90, p<.001$), status of dating ($t=3.62, p<.001$), number of sexual intercourse ($F=14.51, p<.001$), and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t=13.00, p<.001$).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friend's sexual attitude and sexual permissiveness ($r=.64, p<.001$). The variables such as friend's sexual attitude,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the number of watching pornographic video, educational system, religion, and the number of calls with parent explained 52% of the variance in sexual permissivenes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sexual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considering their level of sexual permissiveness and their friend's sexual attitude.

Key Words: Students, Attitude, Sex, Permissivenes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성태도가 완성되는 단계로 이때의 성태도는 청년기의 인격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혼

전의 이성관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인간관계의 유형을 결정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며(Kim, Song, & Kang, 2003), 대학생 자신의 성에 대한 허용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어떠한 성태도를 갖고 있는냐에 따라 성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성태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주어 허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성행동이 더욱 개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Kim & Kim, 2008). 대학생의 개

주요어: 학생, 태도, 성, 허용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Sung Hee,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dong, Jung-gu, Daegu 700-422, Korea. Tel: 82-10-5158-0944, E-mail: leesh@knu.ac.kr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a part of master's thesi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1년 10월 3일 / 1차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일, 2차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6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7일

방적인 성행동에 관한 실태를 보면 대학생의 60%가 성경험이 있었고(Ho, 2009), 성경험이 있는 여자대학생중 25%의 여학생이 임신경험이 있었다는 보고(Ko, 2001)가 있다. 이러한 개방적 성행동으로 인해 성폭력, 에이즈 감염의 증가, 미혼모 및 혼전 낙태의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Chang & Lee, 2003).

성허용성이란 성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말하며 성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Kelly, 1978). Reiss (1967)는 혼전 성허용성에 대한 자율성 이론(autonomy theory of permissiveness)을 제시하면서 ‘교제하는 남녀들이 혼전 성허용성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그들의 자율성 정도와 그들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이 성허용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 성에 대해 외부의 통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우며, 성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적인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성허용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Chung, 2004). 또한 성허용성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성적 성숙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Park, Lee, Park과 Jeoung (1995)은 성허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 가족, 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성허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본이 되며 성취에도 영향을 미쳐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감을 느끼는데 필수 요건으로 여겨진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이 자기정체감을 형성하면서 건전한 대인관계 및 성격발달을 도모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그 수준에 따라 행동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Jeong (1968)의 연구(cited in Yi, C. Y., 2001)에 근거하여 그동안 청소년 및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Ethier 등(2006)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10대 여학생이 성관계를 일찍 시작하고, 위험한 성과트너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성행동이 허용적인 미혼모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Han, 1998),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성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Heo, 2003). 반면에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성의식과 성행동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Yi, 2001)도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장기간 축적된 의사소통 방식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여

겨지는 성에 관한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가족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Chung (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성허용성은 낮아진다고 보고되었고, Choi, Kim., Kwon과 Kim (2005) 또한 성허용성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Kim 등(2003)의 대학생의 성태도-성행동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성행동 수준이 낮게 조사되었고, 부모님과 성에 관한 대화의 빈도가 적을수록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Kim, 2005)도 있다.

성허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요인의 하나인 친구집단 성태도는 친구를 포함한 또래친구들의 성경험, 성태도 및 기대를 뜻하는 것으로(Yoon, 2002), Chung (2004)의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구집단의 성태도와 성허용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영향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역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200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는 친구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와의 친밀감과 성에 대한 대화의 개방 정도가 높을수록 이성교제정도와 성경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Jeoung, Park과 Park (1995) 역시 친구집단 성태도가 허용적일수록 개인의 성허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성허용성에 관한 국외 연구는 Kelly (1978)가 성허용성 개념을 정립한 이후로 청소년의 성허용성과 가족 요인간의 관계연구(White & DeBlassie, 1992), 성허용성과 성태도간의 관계연구(Whitebeck, Yoder, Hoyt, & Conger, 1999) 등이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서구문화의 유입과 성개방 풍조의 확산되자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허용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Choi, 2003; Choi, Kim., Kwon, & Kim, 2005; Chung, 200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성 관련 실태조사(Ko, 2001)와 개념 간의 관계연구(Kim et al., 2003)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성허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족, 사회 요인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성허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친구집단 성태도와 성허용성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 지도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친구집단 성태도와 성허용성 정도와 이들의 관계 및 성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친구집단 성태도와 성허용성 정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성 관련 특성별 성허용성 정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친구집단 성태도와 성허용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성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친구집단 성태도가 성허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허용성 정도와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친구집단 성태도와 관계와 성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D시와 K시의 4년제(K대학교, Y대학교), 2,3년제(K대학, T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 남녀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사전 조사는 2010년 6월 3일부터 7일까지 본 조사에 앞서 문항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설문지 작성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사전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본 조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기기입법을 이용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조사 시간은 개인당 약 10분 이내로 소요되었으며 사전 조사결과 설문지 작성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원 2명에 의해 2010년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비확률 표본 방법인 임의 표출방법에 의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대학생들 400명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비밀 보장을 위해 이름 대신 자신의 생일과 설문 조사일을 기입하도록 하여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서면동의를 얻었다. 조사를 시행한 곳은 각 대학의 강의실 또는 학생 전용 휴게실이었으며, D시 K대학에서는 담당 교수의 동의를 얻어 수업 후 10분 동안 조사하였고, 나머지 조사는 강의 전 또는 후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400부였으나 395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8.8%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고 최종 380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G*Power로 다중회귀모형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양측검정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 검정력 .95, 독립변수 15개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대상자의 수가 125명이었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Likert 척도이고 많은 독립변수가 순위 또는 명목형 척도여서 계산된 표본수 보다 3배 이상은 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에 동의한 400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나 응답이 불충분한 20부를 제외한 380부를 최종 분석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의 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총 66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8문항, 성 관련 특성 4문항, 성허용성 16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20문항, 친구집단 성태도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성허용성

성허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Reiss (1967)의 혼전 성허용성 측정도구를 Sprecher, Mckinney, Walsh와 Anderson (1988)이 재구성 한 것을 Jeoung 등(199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6개 문항으로서, 관계의 발전단계(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이, 좋아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따른 신체적 접촉수준(키스,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성교)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개의 응답 범주를 갖는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6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허용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Jeoung 등(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를 Jon (1974)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아존중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긍정적인 문항 5개, 부정적인 문항 5개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개의 응답 범주를 갖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on (197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였다.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Barnes와 Olson (1982)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Kim과 Shin (1990)이 번안한 청소년용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각각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며, 폐쇄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의사소통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의 5개 응답범주를 갖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폐쇄적 의사소통은 역환산을 하여 의사소통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것을 의미하고, 의사소통 점수가 낮을수록 폐쇄적인 것을 의미한다. Kim과 Shin (199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4) 친구집단 성태도

이 도구는 Korean Women Development Institute (1984)가 미혼모의 친구집단의 성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개발당시 친구들의 성적 개방성 5문항과, 성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지에 대한 1문항을 합쳐 총 6개

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집단의 성태도는 개방성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허용성을 알기 위해 t-test, ANOVA와 Tukey 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친구집단의 성태도와 성허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 관련 특성과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친구집단 성태도가 성허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단계적 변수 선택법을 사용한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

대상자의 소속은 2·3년제 대학이 39.7%, 4년제 대학이 60.3%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2학년이 31.6%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학생이 42.9%, 여학생이 57.1%였고, 연령은 만 18~20세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가 있는 학생이 41.3%, 종교가 없는 학생이 58.7%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58.2%가 부모와 거주하고 있었고, 39.2%가 1주일에 3~4회 부모와 통화한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음란 비디오 시청 횟수를 살펴보면 30회 이상 시청한 경우가 39.7%로 가장 많았으며, 음란 잡지를 본 횟수는 한 번도 보지 않은 경우가 42.4%로 가장 많았고 현재 이성교제 유무에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는 55.3%,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44.7%이었는데, 이 중 이성교제 경험 횟수에서는 2~3회 이성교제를 해본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47.9%, 없는 경우가 52.1%로 경험해 보지 않은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xu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80)

Variables	Categories	n (%)	
General characteristics	Educational system (year)	2~3	151 (39.7)
		4	229 (60.3)
	Grade	1	93 (24.4)
		2	120 (31.6)
		3	104 (27.4)
		4	63 (16.6)
	Gender	Male	163 (42.9)
		Female	217 (57.1)
	Age (year)	18~20	157 (41.3)
		21~23	146 (38.4)
		≥ 24	77 (20.3)
	Religion	Yes	157 (41.3)
		No	223 (58.7)
	Residence type	With parent	221 (58.2)
Self boarding		78 (20.5)	
Dormitory		81 (21.3)	
Number of call with parents (time/week)	1~2	116 (30.5)	
	3~4	149 (39.2)	
	≥ 5	115 (30.3)	
Sexual characteristics	Number of watching pornographic video	None	52 (13.7)
		1~10	110 (29.0)
		11~20	37 (9.7)
		21~30	30 (7.9)
		≥ 31	151 (39.7)
	Number of viewing pornographic magazine	None	161 (42.4)
		1~29	147 (37.6)
		≥ 30	72 (19.0)
	Status of dating	Yes	210 (55.3)
		No	170 (44.7)
	Number of sexual intercourse (time)	None	31 (8.1)
		1	85 (22.4)
		2~3	153 (40.3)
		≥ 4	111 (29.2)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	182 (47.9)
		No	198 (52.1)
	Total		380 (100.0)

2. 성허용성과 관련요인의 정도

대학생의 성허용성의 점수 범위는 16~64점이었고, 평균 28.1점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의 점수 범위는 10~50점이었

고, 평균 26.8점이었다.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점수 범위는 20~100점이었으며, 평균 45.5점이었고, 친구집단 성태도의 점수 범위는 6~30점이었으며 평균 11.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core of Sexual Permissiveness and related Variables (N=380)

Variables	Range	M±SD
Sexual permissiveness	16~64	28.1±11.3
Self-esteem	10~50	26.8±5.8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20~100	45.5±10.2
Friend's sexual attitude	6~30	11.8±4.9

3.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허용성

일반적 특성에서는 학년($F=5.14, p=.002$), 성별($t=7.28, p<.001$), 연령($F=14.72, p<.001$), 종교($t=4.97, p<.001$) 거주형태($F=4.75, p=.009$), 부모와의 통화횟수($F=3.56, p=.030$)에 따라 성허용성에 차이가 있었다. 성 관련 특성에서는 음란 비디오 시청횟수($F=36.05, p<.001$), 음란 잡지를 본 횟수($F=47.90, p<.001$), 현재 이성교제 유무($t=3.62, p<.001$), 이성교제 경험 횟수($F=14.51, p<.001$), 성관계 경험 유무($t=13.00, p<.001$)에 따라 성허용성의 차이가 있었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서는 2,4학년이 1학년보다 성허용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F=5.14, p=.002$),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7.28, p<.001$). 연령은 만 24세 이상의 집단, 만 21~23세, 만 18~20세 순으로($F=14.72, p<.001$), 종교는 종교가 없는 집단이 종교가 있는 집단보다 성허용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6.27, p<.001$). 거주형태는 부모와 거주 및 자취 또는 하숙을 하는 대상자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성허용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F=4.75, p=.009$), 부모와의 전화통화 횟수는 주 1~2회 부모와 통화하는 대상자가 5회 이상 통화하는 대상자보다 성허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3.56, p=.030$).

성관련 특성에서 음란 비디오 시청 횟수가 30회 이상 대상자, 11~20회, 1~10회, 없다 순으로($F=36.05, p<.001$), 음란 잡지 본 횟수는 30회 이상, 1~30회 미만, 없다 순으로($F=24.23, p<.001$),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성허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3.62, p<.001$). 이성교제 횟수에서는 4회 이상이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와 1~3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보다 성허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F=14.51, p<.001$), 성관계 경험 유무에서는 성관계경험이 있는 대상자

가 성관계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성허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13.00, p<.001$) (Table 3).

4. 대상자의 성허용성과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친구집단 성태도를 관련요인으로 하여 성허용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고($r=.46, p<.001$), 친구집단 성태도와 성허용성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64, p<.001$). 즉, 친구집단의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허용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5. 성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 관련 특성과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친구집단 성태도가 성허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단계적 변수 선택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친구집단 성태도, 성관계경험, 음란비디오 시청횟수, 학제, 종교, 부모와 통화횟수가 유의미하였다. 단계적 변수 선택법은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수 진입 유의수준은 5%, 모형에 들어간 변수가 제거되는 조건은 15%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은 $VIF < 2.0$ 으로 다중공선성에 의해 회귀계수 추정치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성허용성 예측모형의 설명력은 52%로 나타났고, 친구집단의 성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성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이, 음란 비디오 시청횟수는 많을수록, 학제는 3년제에 비하여 4년제가, 종교는 있는 학생에 비하여 없는 학생이, 부모와 통화횟수가 많은 학생에 비하여 적은 학생이 성허용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크기는 친구집단의 성태도, 성관계 경험, 음란 비디오 시청횟수, 학제, 종교, 부모와 통화횟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성허용성 점수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성허용도} = -3.862 + 0.908 \times \text{친구집단의 성태도} + 5.334 \times \text{성관계경험} + 1.493 \times \text{음란비디오 시청횟수} + 3.252 \times \text{학제} + 2.434 \times \text{종교} - 0.909 \times \text{부모와 통화횟수}$$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

Table 3. Sexual Permissiveness of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xual Characteristics (N=380)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General characteristics	Educational system (year)	2~3	27.6±12.2	0.67	.505
		4	28.4±10.7		
	Grade †	1	24.5±11.1 ^a	5.14	.002
		2	29.3±11.1 ^b		
		3	28.2±10.6 ^{ab}		
		4	31.0±11.9 ^b		
	Gender	Male	32.7±10.8	7.28	< .001
		Female	24.7±10.5		
	Age † (year)	18~20	25.0±11.0 ^a	14.72	< .001
		21~23	28.9±10.5 ^b		
≥24		33.0±11.6 ^c			
Religion	Yes	24.8±10.1	4.97	< .001	
	No	30.4±11.5			
Residence type †	With parent	28.7±11.0 ^a	4.75	.009	
	Self boarding	29.8±11.7 ^a			
	Dormitory	24.8±11.3 ^b			
Number of call with parents † (time/week)	1~2	29.5±11.3 ^a	3.56	.030	
	3~4	28.8±11.3 ^{ab}			
	≥5	25.8±11.1 ^b			
Sexual characteristics	Number of watching pornographic video †	None	18.3±9.3 ^a	36.05	< .001
		1~10	23.4±9.7 ^b		
		11~20	28.6±10.2 ^c		
		21~30	30.4±11.0 ^{cd}		
		≥31	34.3±9.3 ^d		
	Number of viewing pornographic magazine †	None	23.0±10.8 ^a	47.90	< .001
		1~29	29.4±9.7 ^b		
		≥30	36.7±9.2 ^c		
	Status of dating	Yes	29.9±11.2	3.62	< .001
		No	25.8±11.0		
	Number of sexual intercourse † (time)	None	4.0±9.2 ^a	14.51	< .001
		1	24.2±10.5 ^a		
		2~3	27.3±11.2 ^a		
		≥4	33.4±10.7 ^b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	34.6±8.7	13.00	< .001
No		22.1±10.1			

†Tukey's post-hoc comparison.

소통 유형, 친구집단 성태도와 성허용 정도, 이 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성허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성 관련 특성에 따른 성허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성허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o (2001)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

다 성허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고, Kim 과 Kim (2008) 그리고 Lee 등(2005)의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성행동 점수가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허용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년에 따라 성허용성 점

Table 4. Correlations among Sexual Permissiveness, Self-esteem,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riend's Sexual Attitude (N=380)

Variables	Sexual permissiveness	Self-esteem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riend's sexual attitude
Sexual permissiveness	1.00			
Self-esteem	.08 (.122)	1.0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00 (.998)	.46 (<.001)	1.00	
Friend's sexual attitude	.64 (<.001)	.03 (.526)	-.05 (.364)	1.00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exual Permissiveness

(N=380)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Pr > t	Standard estimate	VI
Intercept	-3.862	3.803	-1.02	.311	0.000	0.000
Friend's sexual attitude	0.908	0.105	8.65	<.001	0.400	1.660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5.334	1.015	5.25	<.001	0.236	1.604
Number of watching pornographic video	1.493	0.321	4.65	<.001	0.205	1.548
Educational system	3.252	0.843	3.86	.001	0.141	1.061
Religion	2.434	0.833	2.92	.004	0.106	1.048
Number of call with parents	-0.909	0.524	-1.74	.084	-0.063	1.038
			R ² =0.53, Adjust R ² =0.52			

Note. Friend's sexual attitude (total score),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No=0, Yes=1), Number of watching pornographic video (0=1, 1~10=2, 11~20=3, 21~30=4, ≥31=5), Educational system (2·3 years educational system=3, 4 years educational system=4), Religion (Yes=1, No=2), Number of call with parents (1~2 times/week=1, 3~4 times/week=2, ≥5 times/week=3).

수의 차이가 있었는데 2학년과 4학년의 성허용성 점수가 1학년의 성허용성 점수보다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Kim, 2005; Kim & Kim, 2008)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성허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 등(2005)의 연구에서 만 18세에서 20세의 대학생보다 만 21세 이상의 대학생이 직·간접적인 성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대학생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허용도가 높아진다는 Ho (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반면에 Kim 등(200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연령이 낮을수록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연령이 대학생의 실제 성행동과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일치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생은 대학생생활 초기에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적극적인 성행

동으로 옮기는 시기는 이성교제가 활발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고학년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이 고학년으로 진입하기 전에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해주고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종교가 없는 대학생의 성허용성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Park (2002)의 연구에서 종교가 없는 대학생의 혼전순결의지가 더 낮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였고, Kim 등(2003)의 연구에서 무교인 대학생이 개신교나 천주교를 가진 대학생보다 성태도가 더 개방적이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Lee 등(2005)도 무교인 대학생의 성허용성 점수가 기독교를 가진 대학생의 성허용성 점수보다 높았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어 종교는 지속적으로 개인의 성의식 형성과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성허용성 점수가 부모와 거주하거나 자취 혹은 하숙을 하는 대학생의 성허용성 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거주형태에 따른 성허용성 점수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Lee et al., 2005; Kim, 2005)와는 상반되었다. 이와 달리 Kim 등(200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태도·성행동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대학생은 비동거 대학생보다 성에 대한 허용성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귀가 시간제한 등의 기숙사 생활규제가 대학생의 야간시간대의 행동을 통제하여 결과적으로 성허용적 행동을 제한하는데 영향하였을 가능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거주형태별 성허용성의 차이를 반복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부모와의 통화회수가 주당 1~2회인 경우보다 5회 이상인 경우에 성허용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성허용성 점수가 낮다는 선행연구결과(Chung, 2004; Choi, Kim., Kwon, & Kim, 2005)를 지지하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성허용성이 높은 본 연구결과는 Kim 등(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음란 비디오 시청횟수와 음란잡지를 본 횟수가 많을수록 성허용성 정도가 높다는 결과는 Yang (2010)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성허용성에 관한 연구에서 음란물의 노출정도가 높을수록 성허용성이 높았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였다. 그리고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성허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Ho (2009)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성경험이 있는 집단이 성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대학생의 성허용성과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바 친구집단 성태도가 성허용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친구집단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허용성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Kim (2005)의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친구집단 성태도와 개인 성태도가 성허용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였고, Kim과 Kim (200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및 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또래의 성허용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성행동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

기에 있는 대학생은 친구집단과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여 신념, 태도, 가치 및 행동방향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특성을 가진 친구집단인가에 따라 대학생의 성규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친구집단 내에서 성태도와 성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허용성간에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성을 억압하지 않고 갈등을 줄이며 자연스럽게 성을 받아들여 자기개념을 손상시키지 않으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고 성행동 점수가 높다는 보고(Kim, 2002)가 있었으며, 대학생의 심리적 성숙변인과 성태도와의 관계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성허용성이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결과(Kim & Kim, 2008)도 있었다. 반면에 Yi (200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수준과 성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성태도, 성허용성 간의 상관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이 두 개념에 대한 관계 분석 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Kim과 Heo (2003)는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성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남자대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성허용성이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던 반면에 여자대학생에게서는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Lee 등 (2005)도 남자대학생에게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위행위와 성관계 등과 같은 직접적인 성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대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직접적인 성행동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ong (2006)은 여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성을 제시하면서 이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자기주장성이 강한 여대생일수록 성관계까지 행하는 성접촉 수준이 높아졌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대생에게서는 애무행위의 점수만 높았고 성관계 점수는 높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이성교제 시 아직까지 남성 주도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성허용성과 성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주장성을 매개로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의 성행동과 성허용성은 자아존중감 이외 자기주장성과 같은 다른 심리적 변인들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자기주장성을 투입하여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성허용성과의 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의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자녀의 인성뿐만 아니라 성가치관에도 형성을 줄 것이라는 가정아래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과 성허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이 두 변인 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측정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성태도, 성행동을 조사한 선행연구(Kim et al., 2003; Kim, 2005)에서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성태도와 성행동 점수가 낮아진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평균 점수는 최고 5점에 2.3점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 점수는 주로 서울, 경기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점수를 측정된 Kim 등(2003)에서의 3.6점(최고 5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였고, 이를 통해 주로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성태도 등이 자녀의 성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는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성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될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생의 성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친구집단 성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성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이, 음란 비디오 시청 횟수가 많을수록, 학제는 3년제에 비하여 4년제가, 종교는 있는 대상자에 비하여 없는 대상자가, 부모와 통화횟수가 많은 학생에 비하여 적은 학생이 성허용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크기가 가장 큰 변인은 친구집단의 성태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성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조사를 한 Chung (2004)의 연구에서 친구집단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허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고, Kim (2005)이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본 연구결과와 같이 친구집단 성태도가 성허용성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난 것과도 일치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및 대학생시기의 친구집단은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하는 준거집단으로 기능하므로 친구집단간의 긍정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대학생의 건전한 성의식 및 성태도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hoi (2009)의 청소년 대상으로 음란물 노출과 실제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음란물 노출이 증가할수록 성에 대한 허용성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지식 습득의 출처가 음란물에 한정되도록 방임하지 말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정보화의 물결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터넷 음란사이트 접촉이 가정 및 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차단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성관계 경험, 학제, 종교 유무, 부모와 통화회수가 대학생의 성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이 결과를 통해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4년제 학생일수록, 종교가 없는 경우, 부모와 통화 회수가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성허용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상담을 하거나 성교육 자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선행연구가 대학생의 성에 대한 개념 측정 및 성행동 실태조사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개인의 성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또래집단의 성태도를 포함하여 대학생의 성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친구집단 성태도와 성허용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D시와 K시에 소재하는 4년제(K, Y대학교)와 2,3년제(K, T대학) 대학의 대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친구집단 성태도, 성허용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설문지로 조사한 후 수집된 자료를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성 관련 특성에 따른 성허용성의 차이에서 일반적 특성에서는 학년, 성별, 연령, 종교, 거주형태, 부모와의 통화횟수에 따라 성허용성의 차이를 보였고, 성 관련 특성에서는 음란 비디오 시청 횟수, 음란 잡지를 본 횟수, 현재 이성교제 유무, 이성교제 경험 유무,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라 성허용성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성허용성과 관련요인의 상관관계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도와 자아존중감, 친구집단 성태도와 성

허용성이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대학생의 성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친구집단 성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성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이, 음란 비디오 시청 횟수는 높을수록, 학제는 3년제에 비하여 4년제가, 종교는 있는 학생에 비하여 없는 학생이, 부모와 통화횟수가 많은 학생에 비하여 적은 학생이 성허용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대학생의 성허용성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는 예방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과 성허용성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연구의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허용성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 규모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성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on(Ed),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pp. 33-48).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Chang, S. B., & Lee, M. K. (2003). A study on sexual autonom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33(3), 339-346.
- Choi, J. Y. (2003). *The effects of parents, peers, exposure to pornographic contents on the internet and sexual values on sexual behaviors among early teenag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 Choi, M. H., Kim, K. H., Kwon, H. J., & Kim, S. K. (2005). The study on sexual permissiveness, family function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1(1), 54-62.
- Choi, M. I. (2009). Determinants on the exposure to internet sexually explicit materials and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2), 49-70.
- Chung, M. K. (2004). *Factor influencing sexual permissiveness in middle school gir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Ethier, K. A., Kershaw, T. S., Lewis, J. B., Milan, S., Niccolai, L. M., & Ickovics, J. R. (2006). Self-esteem, emotional distress and sexual behavior among adolescent females: Interrelationships and temporal effec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3), 268-274.
- Han, Y. J. (1998). *Influence factors to self-esteem of teenage and twenties unmarried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Seoul.
- Ho, S. M. (2009).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Jeoung, M. J., Park, H. S., Lee, J. S., & Park, C. A. (1995). Premarital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the youth.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6), 11-23.
-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nonchong*, 11(1), 107-130.
- Kelly, J. (1978). Sexual permissiveness; Evidence for a theory. *Journal of the Marriage and the Family*, 40, 455-468.
- Kim, H. K., & Heo, E. J.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maturity variables and sexual attitude in university stud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4), 403-422.
- Kim, J. H., & Kim, K. S. (2008).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1), 123-138.
- Kim, J. H., Song, E. I., & Kang, S. H. (2003). A study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and parents-children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 111-124.
- Kim, J. S. (2005). *A study about the factor affecting the sexual permissiveness of male students of middle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J. Y. (2005). *The analysis of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 by communication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Y. H., & Shin, H. S. (1990).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between the model student family and the delinquent adolescent fami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9(5), 69-83.
- Kim, M. Y. (2002). *A study about adolescent' self-esteem and sexu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Ko, Y. S. (2001). *A study o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Unpublished

-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Korean Women Development Institute. (1984). *A Study on the unmarried mothe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nalysis of factors relating her occurrence and welfare measures*. Korean Women Development Institute.
- Lee, J. Y., Ha, S. H., & Chung, H. Y. (2005). The relationships of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0(3), 149-172.
- Park, H. S., Lee, S. J., Park, C. A., & Jeoung, M. J. (1995). Premarital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the youth.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6), 11-23.
- Park, S. Y. (2002). *A study on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Pusan.
- Reiss, I. L. (1967). *The social context of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ong, H. S. (2006). *A study of college students in relationship among sexuality, self-assertiveness,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University, Jinju.
- Sprecher, S., Mckinney, K., Walsh, R., & Anderson, C. (1988). A revision of the Reiss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scale. *Journal of Marriage Family*, 50, 821-828.
- White, S. D., & DeBlassie, R. R. (1992). Adolescent sexual behavior. *Adolescence*, 27(105), 183-191.
- Whitebeck, L. B., Yoder, K. A., Hoyt, D. R., & Conger, R. D. (1999). Early adolescent sexual activity: A development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4), 934-947.
- Yang, S. J. (2010). A study on the adolescents' exposure to internet-oriented sexually explicit materials and permissiveness attitudes. *Journal of Youth Culture Forum*, 32, 126-152.
- Yi, C. Y.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elf-esteem, sexual awar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by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Yoon, K. J. (2002).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female's sexual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8), 107-121.